



서예 작품 앞에 선 월서 스님.

'북한'으로 전하는 지비정신

조계종 원로 월서 스님 '북한동포·외국노동자 돕기 서예展'

송강스님이 선사하는 '영산재의 진수'

영산 범음 발표회 성료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도량을 재현, 여러 보살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구해, 일운, 기봉 스님과 함께 2세대 영산재 주자로 활동중인 송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사진위의 영산 범음 발표회가 10월 27일 안성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스님은 송강범음범패 전승회원 40여명과 함께 무대에 서 '도량성계' '천수바라' '바라' '육거불' 등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김태원 안성시 문화원장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법패의 대표성을 지닌 영산재의 진수를 송강 스님의 관록 있는 작법시연으로 만끽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굵지 않은 가운데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수행사에 연마해 온 서예작품으로 고통 받는 중생계에 지비를 전한다. 월서 스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북한동포와 외국노동자 돕기 서예展'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가 주최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모두 1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어려서부터 서예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월서 스님은 20년 전 추사본의 대가로 꼽히는

운남(雲南) 선생을 만나 운필법을 사사했다. 이후 스스로의 서체를 찾아 일념정진하며 '선종 일여(禪墨一如)'의 화두를 놓치지 않았다. 평소 제자나 불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계승이나 경전 구절, <금강경> 등을 독특한 필체로 구현한 전시작들은 최근 1년 사이에 쓴 것들이다. 작품에 몰두해 사나흘씩 작업을 잊은 적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오른팔의 어깨뼈가 빠지는 고통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

님은 "월서 스님의 글씨는 이미 서예의 경지를 넘어서 서도를 관통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외국인 노동자 센터 개설과 북한동포 구호 및 종단의 해외 활동 발사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서 스님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왔는데 주민들의 생활은 참담한 지경이었다"며 "수행자로서 종단의 대북교류에 힘을 보탬 수 있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글=일연태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이웃과 하나되는 산사음악회

17일 기원사 창건 30주년 잔치

"기원사가 창건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월계동 지역민들과 함께 종교를 초월해 축하잔치를 벌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산사음악회를 처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음악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부담 없이 듣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기원사 회주 지연 스님(사진)이 11월 17일 오후 5시부터 개최하는 산사음악회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몸담고 있는 한국꽃잎이협회 회원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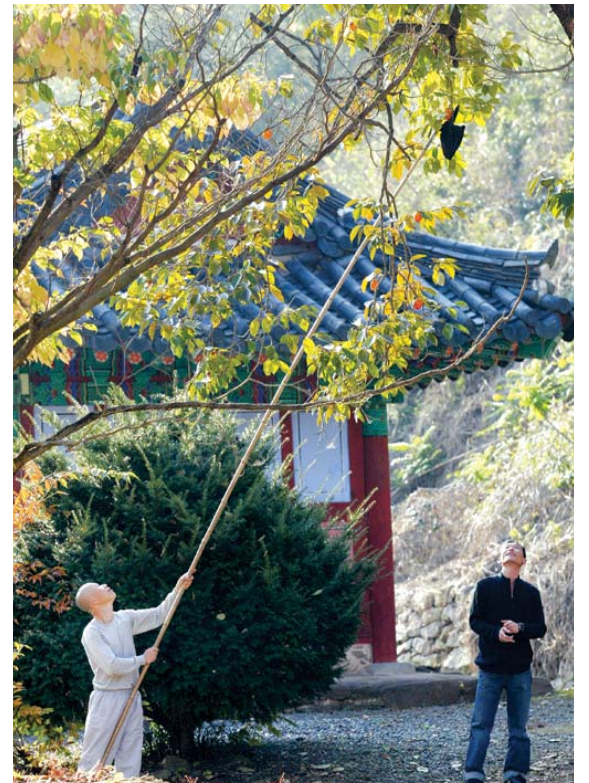
회원들은 스님의 사찰을 방문하고 싶은데 종교가 달라 망설여져 기원사에서 음악회를 열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이라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기원사 자체 합창단의 발표에만 그치려했지만 준비하다 보니 외부 음악인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산사음악회로 커져 버렸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하는 이들과 그들이 쏟아내는 레퍼토리는 다채롭다. 우선 진행은 방송인 김병조씨가 맡는다. 김씨의 동생 부부가 기원사 신도인 것이 인연이 됐다. 정태준·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올라 대표곡인 '사랑하는 이에게' '탄발승의 노래' '시인의 마음' 등을 부른다.



회진씨가 '사랑'과 '오봉산 타령'을, 조석호씨가 '청성곡'을 대담으로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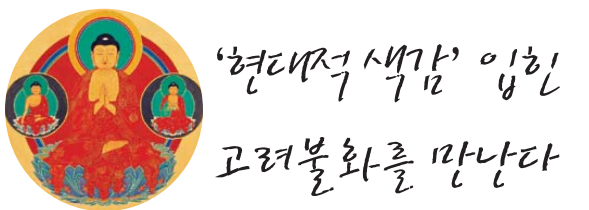
'40대 동방신기'란 별명이 붙은 남성 5인조 그룹 '파파스'는 원조 동방신기의 '우정단합'과 브레이크 댄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분위기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악인 안이빈 음악회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기원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이다. 합창단은 찬불가와 대중가요, 팝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02)918-0034 김주일 기자

포토에세이



'가을'을 떠나는 스님

산사는 깊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도량 한 쪽에서는 스님이 감을 따고 있다. 계절이라는 것이 가면 또 오는 것인데도 일상은 늘 그 오고감에 미련이 많은 모양이다. 떠나려는 계절을 붙잡고 싶어질까. 스님은 남아있는 가을을 따고 있었다. 10월 30일 원주 송광사에서. 글·사진=박재환 기자



예정화 불교회화展, 11월 12일부터 7일간

불교 미술 중에서도 고려불화(高麗佛畵)는 아름답기로 이름 높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선 진면목을 만나기가 어렵다. 현대에 전해진 160여점 대부분이 임진왜란 등 각종 전란 때 빼앗겨 일본 등에 있고 국내엔 10여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 많은 불화가들이 '꽃겨버린 민족문화의 명맥을 이어 보려는 마음'으로 그리기 어렵고 까탈스러운 고려불화 기법을 고집한다. 예정화 작가도 그중의 하나다. 다만 예씨는 전통에 충실하되 원작의 표정이나 색감 일부분을 현대적으로 변형한다. 일명 '공필진채불화'다. 예씨는 천연안료를 정성들여 발색해 고아하고 독특한 고려불화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다. 예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렇게 공들여 작업한 '송광사 석가모니후불탱' '비로자나불' '아미타여래도' 등 30여점을 내놓는다. 1993년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고려불화특별전'에 이어 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신비의 명약 鳳凰 山蔘

천제가 자상에 내려와 산신령으로부터 단 한뿌리만 얻어 갔다는 전설속의 봉삼
태조 왕건에게 1,000년된 봉삼을 바쳤다는 신비의 봉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불로초로 알려진 봉삼

모든 산삼중에 최고의 약 효능이 뛰어난 봉삼
죽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할 도약하는 봉삼
누구나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봉삼

※ 본초강목에 의하면 봉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 위, 비대소장, 두통(만성), 해수, 열풍독, 모든 지각성마비, 근육통, 살균피부반, 소염 이노에 특효라고하고, 폐경, 대장경, 비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해독한다. 했고...

봉삼 달임액으로도, 이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밝혀졌다. 풍한습비증, 황달, 대장염, 임중, 대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유행, 버짐 등에 쓴다. 그리고 수태음경, 수양명경에 작용하고, 풍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약이라 한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별히 저렴하게 드립니다.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처 018-554-6198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출간 !!!

심명 99절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름 그대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자비광명들이다. (...) 이 심명은 언어와 문자이면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주옥같은 법문이다.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범용선사의 뜻을 잘 관조하여 영산회상에서 가섭 존자가 지었던 미소 짓길 바라마지 않는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심명 서문 중에서..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풀고 있는 최대명의 공안집 선문연승.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 과 <바로보인 선문연승>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명보살 기꺼움은 신비의 달마도와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냐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감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지의 근거리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학2동 달마사 지명 합장